<2010년 8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>

1.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은 작아도 크게 본다.

2. 금강산보다도 섭리사 자연성전을 더 크게 본다.
  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.

3. 작은 자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. 큰 자는 작은 자의 배경으로 쓰이게 된다.

4. 어떤 지역이 작아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큰 지역보다도 더 크게 쓰인다. 큰 지역은 하나의 증거 지역과 배경 지역으로 뜻 있는 곳을 조명해 주는 데 쓰인다.